

“난 운 좋은 수행자, 선지식 두루 뵈었으니...”

대현 스님 수행기 '선승의 길'...운수남자의 구도행 생생히 들려줘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하는 책이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다음세대에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만다. 서울 보광사 보광선원장 대현 스님(사진)의 <선승의 길>은 두고두고 전해져야 할 가치 있는 기록이다. 한 평생 수행의 길을 걸어 온 운수남자가 예순이던 세월의 고갯길에서 지나 온 길을 되돌아 본 진솔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작 대현 스님은 “중은 흔적 없이 왔다가 흔적 없이 떠나는 것이 미덕인데 구린내를 풍기게 되어 부끄럽다”고 말하지만 첫 장에 눈이 가면 끝까지 무엇에 홀린 듯 읽게 되는 매력(?)이 있다. 결코 구린내가 아니라 선승의 간절하고 활발한 구도행각에서 풍기는 향기가 가슴을 가득 채워 준다.

대현 스님이 아스라이 되돌아 본 수행 여정은 선전의 유교(遺敎)들을 읽기 위해 한문 공부 할 곳을 찾다가 절에 들어간 소년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한문 공부를 목적으로 절에 들어 갔으니 경전을 공부해 강백이 될 확률이 많았지만 행자시절부터 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리산 불일암에서 49일간 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기도를 한 뒤부터다. 한 곳에 오

래 머물지 않고 좋은 도량과 선지식을 찾아다니다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았다. 대현 스님은 “난 참 운이 좋은 수행자야. 그래도 당대의 큰 선지식들을 두루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라며 전강 해암 월산 송담 경봉 성찬 항곡 스님 등에게 점검 받은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 놓는다.

자상한 할아버지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 놓는 대현 스님의 이야기는 수좌들의 선원 생활이 눈에 그려지는 듯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수행자가 지나야 할 덕목들과 금기해야 할 사항들도 선지식들의 입을 빌어 고구정녕하게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지식들을 참방하여 도를 묻고 답하는 과정들이 흥미진진하다. 월산 스님 앞에서 “불 경은 자기 울음에 자기가 죽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전강 스님과 송담 스님에게 거듭거듭 법을 문던 일, 성찬 스님과의 ‘비파줄’ 법가랑 등은 우리시대의 선어록이다.

참선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대로 배울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대현 스님은 평생 참선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십우도’를 스님의 독특한 견해로 풀었다. ‘십우도’를 화두 공부라 깊어

지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대현 스님의 견해다.

“혹자는 소를 자성에 비유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 자성은 본래부터 청정무구하여 마니보주와 마찬가지로 거듭무더기에 싸여 있다고 더럽혀지는 법이 없고 맑은 물로 씻는다고 하여 더 빛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는 화두공부를 지어가는 방편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본다.”

책의 뒷부분에서는 유식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수좌만의 독특한 안목이 ‘마음’의 정체를 밝힌 것이다. 대현 스님은 “목조선과 화두선의 관계를 밝히고 선의 역사적 사상의 흐름을 새롭게 짚어 보는 글을 쓸 작정”이라고 말했다.



선승의 길
대현 스님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1만 2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문화인’의 가슴에 새긴 절과 추억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종교와 상관 없이 관광지 옆 절을 한번쯤 스쳐지나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절은 어떤 의미일까. 고즈넉함, 아름다운 단아함, 소박함... 등. 사람의 성격이나 종교 관심사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문화계 인사들은 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 책은 강석경, 송영방, 이호선, 최원수 등 52명의 국내 대표적 문화 인사들이, 삶의 어느 한 순간이나 일정 시기 겪었던 절과의 인연을 소개한다. 절에 머물렀던 당시 각자의 마음속에 그려진 모습들을 글에 담아 사진과 함께 엮었다.

소설가 한승원 씨는 문학을 심취하게 된 열아홉살에 전남 장흥 천관사를 찾았다. 열정은 넘치지만 스스로의 재능에 절망하던 그가 찾은 천관사에는 텅빈 가슴 속을 더욱더 허전하게 흔들어 대는 바람만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 씨는 그 바람소리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머무르고 있다고 회고 한다. 그가 대표작인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쓴 것도, 부처님 앞에서 혼례식을 올린 것도 다 그 바람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

이 책은 아름다운 절보이는 절,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되었던 절, 스님과의 인연이 각별하여 기억되는 절 등 여덟 가지 주제에 따라 본문을 나누었다. 또한 각 절의 소재지, 창건시기와 창건자, 그리고 역사와 문화,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지도 등을 부록에 따로 정리해 실어 가이더북으로도 손색이 없다.



내 마음에 남은 절
강석경 외 51명 지음
김성철 사진
산처럼 | 1만2800원

‘고통’은 불교와 심리치료의 출발점

“불교와 심리치료의 출발점은 인간의 고통이다. 또한 모든 심리치 료자들이 비록 같은 훈련을 받았더라도 모두 같은 치료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데 이것은 치료자의 능력과 인격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최충동 한별정심병원장

“마음챙김 명상은 다양한 심리치유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의 치료 효능은 명상수행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용을 유도하는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지난해 9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불교와 심리’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들이다.

이 자리에는 불교학, 상담심리학, 요가학계의 중견학자와 정신과 의사 등 9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과 발표를 했다. 이 내용들을 주최자인 ‘불교와심리연구원’이 학술지 성격의 단행본으로 만든 것이 <불교와 심리>다.

즉 이 책은 장간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목할 만한 세 주저자들이 가득하다. 가령 ‘불교는 고집멸도 사성제의 체계로 제시되며,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불교의 접근법은 심리치료와 유사하다’ ‘불교는 자기 치유를 통해 심리치료에 대한 부적응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등등. 얼핏 책을 들춰보면 딱딱한 논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용들을 차근차근 곱씹어보면 복잡해져 심신을 달래주기에 충분한 불교심리치료서다.



불교와 심리
권석만 외 8명 지음
불교와심리연구원
1만2000원

“깨어남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있다. 지금없는 것도 없다. 지금 없는 것에 사로잡히면 지금 있는 것을 놓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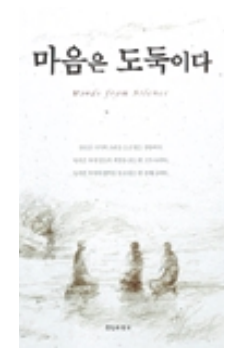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자기의 가슴을 외면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아 주기를 바라며 자기의 눈을 외면한다.”

미국에서 마음수행을 하고 있는 레너드 제이콥슨의 이 책은 잠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선 읽기가 편하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공안(公案)과 같은 깃구들은 독서를 잠시 중지시키고 사유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든다.

‘깨어남으로의 초대’란 책의 부제처럼 저자는 영적인 깨어남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막상 깨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 있다. 꿈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하게 되며, 진정한 내적 평화와 행복,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저자는 꿈속에서 깨어나, 지금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존의 세계로 나오도록 조언한다. 그러기 위해선 즉 깨어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포함해 자기 자신에 대한 조건없는 사랑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완전히 다 읽기보다는 인생의 고비때마다 무작위로 들춰보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책이다.



마음은 도둑이다
레너드 제이콥슨 지음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 9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 마음이 불면해요	법통	정토
2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다이어
3	문없는 문, 빛없는 빛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4	육조대사 법보단경	법지	운주사
5	여보게 살게는 했는가	월안	휴먼앤북스
6	무비 스님의 신명경 경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7	오체투지	한경혜	작가의 집
8	실과 죽음, 버드와 새	종암	정우서적
9	무문에서 꽃이 피다	최민희	운주사
10	단백에 율체를 걷는 기르침	김기수	불광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발란스 테이핑

물소불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불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직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복통, 항염작용, 담뇨법, 고혈압, 진주염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런 45도 각도로 붙여주면 된다. 또한 굵은 자리에 붙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직용이 아니라 나뭇 새기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 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c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제의 신간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증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향입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등보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저자: 남산스님
남산선원장
법/로 10,000원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5,175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 이 작품은 방대한 금강경 5,175字를 廷瀾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족자 한 면에다 금분으로 직접 써서 정성들여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有人持用(유인자용) 法布施(법보시)로 각 가정에 한 점씩 소장하여 受持讀誦(수지독송 위인연설) 하면 信(신) 解(해) 行(행) 證(증) 七佛通揚(칠불통양)로 金剛道場(금강도량)에 앉아 佛果(불과)를 성취하고 상봉에 이르십니다. 특히 三災(삼재)에 해당되는 巳酉丑(병, 닭, 소) 띠 생은 入三災(입삼재)해 2007 丁亥年에 장엄한 금강경 족자 한점씩을 소장하신다면 善根(선근) 回向菩提(회향보티)로 能淨業障(능정업장)하십니다. 善根功德(선근공덕)으로 삼재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이 소멸되며 각 가정이 富貴尊榮(부귀존영) 得福甚多(득복甚多)하실 것입니다.

◆ 가격 : 32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 크기 : 세로 180cm X 가로 78.5cm (양면은 14K금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방대하고 장엄한 금강경 족자를 불자님 누구나 부담없이 한점씩 소장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점씩 법보시 하십시오.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주전 만유에 찬란히 빛나는 21세기 부처님 최고의 선물 재산목록 1호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정판 구입하십시오.(선착순 200개 한정판매 합니다.)

■ 입금통장 계좌번호 : 하나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김근환)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77-2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전화 051)806-0316 / 휴대전화 011-488-0316 정담廷瀾합창